

목 차

2019년 제2차 OECD 청렴작업반회의 결과 보고서

2019. 12

1.	2019년 제2차 OECD 청렴작업반회의 참석 결과.....	3
2.	세부 회의 결과.....	6
붙임 1	회의 일정.....	16
붙임 2	회의 사진.....	17
붙임 3	OECD 공공청렴에 대한 이사회 권고문.....	18
붙임 4	의제별 토론 그룹 배정표	20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9. 11. 4.(월)~5.(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주관기관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 회의 개요
 - 청렴추진을 위한 범사회적 접근법, 열린 조직문화 지원, 청렴 정책 영향평가 및 청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툴킷 및 지표 개발에 대한 논의를 위해 OECD에서 개최하는 실무회의
- 주요 논의 내용
 - 회원국의 OECD 청렴 권고문 이행 지원을 위한 핸드북 발간, 청렴정책 효율성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OECD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및 청렴 아젠다 등 논의
- 참석자
 - OECD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약 30여 개국 대표단, 참관국(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모로코, 페루, 루마니아) 등 총 50여 명

□ OECD 청렴작업반회의 주요 결과

- OECD 청렴작업반은 2017년 마련된 OECD 청렴권고안(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선언적이고 축약적인 권고안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각 권고별 핸드북을 제작중임.
- * OECD 청렴작업반(SPIO)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청렴권고안(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을 이행해야하며, 핸드북은 자체적으로 청렴권고안 이행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북 역할을 하게 됨.

- 이번 회의에서는 각 권고안의 핸드북 초안을 국가별로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동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이 2020 OECD 청렴주간 회의(Integrity Week) 계기에 발표될 예정임.
- 총 13개 권고에 대한 각국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유되었고, 한국은 권고3번(전략) 부문에 대하여 성숙도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함.
- 향후 일정 : 2019.3.25.-26간 OECD 청렴주간 중 청렴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며, 청렴작업반회의는 청렴포럼과 연계하여 3.24에 개최될 예정임.

□ 정부 대표단 활동

- 우리나라는 총 13개 권고문 중 3번째인 전략(strategy) 핸드북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동 핸드북 내 각 나라의 반부패 전략 수준을 평가하는 ‘성숙도 모델(maturity model)’을 분석하여 ① 한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② 모델 질문지 등이 개선해야 할 점을 발표함.
- 불가리아(Ms. Petya Tyankova, Head of th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for judicial reform and minister of foreign affairs)는 우리 대표단을 접촉하여 내년에 불가리아 국가 청렴 전략을 대대적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청렴정책을 공유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 옴.
- 이에 우리 대표단은 한국의 반부패 5개년 계획을 소개하며 영어로 된 자료 등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므로 공유하겠다고 답변함.
- OECD 공공행정국의 Jeroen Michaels는 우리 대표단을 접촉,

12.3.-6.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아태지역 컨퍼런스에 우리측 고위급의 참석을 재차* 요청해옴.

* 첫 번째 요청은 OECD 한국정책사무소측에서 권익위를 방문하여 이루어짐.

- ADB/OECD 아태 반부패 이니셔티브는 베트남 총리가 참석하는 등 고위급 인사가 다수 참석 예정이며 전 회차 컨퍼런스 개최국 이자 아태지역 반부패 선도국인 한국의 국민권익위에서 고위급이 참석하여 아태지역의 반부패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언급.
- 다만 12.3.(화) 베트남에서 상기 컨퍼런스와 연계하여 개최 예정이었던 법집행담당관회의가 하노이가 아닌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리며, 12.10.-11.간 개최될 GLEN(Global Law Enforcement Network) 회의에 한국 법집행 담당자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옴.

□ 관찰 및 평가

- OECD 청렴 권고안에 대한 핸드북이 곧 발간될 예정인바,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반부패 정책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관찰됨.

2

세부 회의 결과

□ 개회

- Mr. 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국 부대표 대행과 Silvia Späth, OECD 청렴작업반회의 공동의장의 인사말로 개회됨.
- 최근 청렴작업반 주요 목표(mandate)를 새롭게 업데이트 하였으며 새롭게 바뀐 mandate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또한 공공청렴권고문(Public Integrity Recommendation) 이행을 위한 핸드북 논의가 막바지에 들어선바, 이번 회의에서 각 이슈별 핸드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언함.

□ 공공 청렴 권고안 핸드북 : 전략(Strategic)

- 공공 청렴 권고안(별첨)은 총 13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OECD 사무국은 각 원칙에 해당하는 핸드북을 평가하고 분석할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평가 내용을 청렴작업반 회의 계기에 공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각 원칙에 대한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됨.
 - Principle 1 : commitment - Mr. Terje Dyrstad, 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ICT Policy and Public Sector Reform,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zation, Norway
 - Principle 2 : Responsibilities - Ms. Silvia Spaeth, Detective Chief Inspector,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Building and Community, Germany

- Principle 3 : Strategy – Ms. Sohee Moon, Deputy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Divisio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Korea
- Principle 4 : Standards – Ms. Inta Nolle, Acting Head of Division of Strategic Communication, Corruption Prevention and Combating Bureau of Latvia (KNAB), and Mr. Andris Kairiss, EU Funds Project Manager, Latvian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atvia
- Principle 5 : Whole of Society – Ms. Izadora Zubek, Deputy International Officer, French Anti-corruption Agency, France
- Principle 6 : Leadership – Ms. Liz Quinn, Group Manager, Leadership and Capability, 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Australia (represented by Ms. Debbie Taylor, A/g Group manager, Leadership and Capability, 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Australia)
- Principle 7 : Merit-based – Ms. Anna Gau, Senior Specialist, Legal Affairs, Ministry of Finance, Finland
- Principle 8 : Capacity Building – Ms. Katarzyna Dudzik, Co-ordinato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ivil Service Ethics, Chancellery of the Prime Minister, Poland
- Principle 9 : Openness – Ms. Kathleen Clarkin, Director, Workplace policies, Programs, Engagement and Ethics, Office of the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Canada

- Principle 10 : Risk Management – Ms. Anne Rivera, Head of the Competence Centre for Contracts and Procurement and Head of the FDFA Compliance Office,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Switzerland
 - Principle 11 : Enforcement – Ms. Pelagia Patsoule, Junior Policy Analyst, Public Sector Integrity Division, OECD
 - Principle 12 : Oversight – Ms. Conceicao Ventura, Chief Auditor, Court of Auditors, Portugal
 - Principle 13 : Participation – Mr. Marcelo Aguirre Drago, Commissioner, Council for Transparency, Chile
- OECD 사무국은 사전에 이메일을 통하여 우리측을 접촉, 권고안 3번 전략(strategy)에 대한 핸드북을 검토하고 ‘국가별 성숙도 모델’에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대입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함.

< 권고안 3번, 전략 >

[전략]

3. 공공 청렴성 위험 요인 완화를 목표로 증거에 기반한 공공 부문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특히 다음을 통해 개발한다.
 - 가. 공공 청렴 기준 위반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공공 청렴 정책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공공 청렴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
 - 나. 공공 청렴 시스템의 이행, 성과 및 전반적인 실효성 수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벤치마크와 지표를 개발

- 권고3의 핸드북에 대한 우리측 의견

1. 권고3은 총 13개의 권고문 중에 가장 짧은 내용으로 소개된 권고로서, 개념(conceptual)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동 핸드북은 ‘전략’부문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문제 분석(problem analysis) 단계 → 전략 디자인 → 평가를 위한 기초 초석 다지기 → 행동계획 작성 및 그에 따른 비용 계산 초안 작성 → 이행, 평가, 전략에 대한 피드백 → 전략에 대한 고위급의 의지 및 지원 재확인 등 매우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권고3에서 부족한 설명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보여짐.

2. 전략적 제도 마련을 위한 국가별 성숙도 모델

< 국가별 성숙도 모델 >

질문	A	B	C	D
청렴에 대한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지?	청렴 위험성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하지 않음.	기존 데이터(예: 설문조사, 행정 정보) 등이 전략 개발을 위해 사용됨.	전략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음.	별도의 청렴 위험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함.
전략적 목표를 우선시하여 다른 조직/기관/외부와 협력하였는가?	국가적 차원의 청렴전략목표가 거의/아예 없음.	전략적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문제를 분석하여 찾은 증거에 기반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전략적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문제를 분석하여 찾은 근거에 기반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u>또한 정부/비정부 기관이 함께 공공 의견</u>	전략적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문제 분석 및 <u>제도적 검토</u> 를 통해 찾은 근거에 기반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또한 정부/비정부 기관이 함께 공공 의견을 수렴함.

핵심 청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전략적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전략적 목표가 국가적 차원의 청렴 위험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몇 개의 핵심 청렴 위험 분야를 겨냥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u>지방정부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한다.</u>	몇 개의 핵심 청렴 위험 분야를 겨냥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u>모든 핵심 청렴 위험 분야에 대한 전략적 목표가 있고 지방정부의 목표와 부합하며 사회전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u>
학습과 신뢰성 증진에 대한 청렴 목표 측정을 위해서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지표가 없거나 우선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목표에 대한 지표가 설정되어 있다.	우선목표와 차선목표에 대해 모두 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u>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고, 넓은 범주의 데이터를 제공한다.</u>
행동계획은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가?	행동계획이 없다.	반부패 이행을 위한 의무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행동계획이 있으며, 지표에서 가리키는 목표와 연계성이 있다.	반부패 이행을 위한 의무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행동계획이 있으며, 지표에서 가리키는 목표와 연계성이 있다. 또한 <u>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u>

▶ 첫 번째 질문(청렴에 대한 위협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지?)

- 한국은 청렴도측정(Integrity Assessment)라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카테고리 D에 해당함. 청렴도 측정의 목적은 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청렴도 제고 및 효과적인 반부패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②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별 청렴도의 수준을 도출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우선 개선영역 및 취약 업무 파악, ③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표과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청렴도 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④ 청렴도 측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패척결과 청렴도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고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다만, 질문 B와 C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바, 질문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질문지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두 번째 질문(전략적 목표를 우선시하여 다른 조직/기관/외부와 협력하였는가?)

- 한국은 청렴도측정 제도 하에 측정 영역과 항목별 가중치 설정 시 학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D 모델에 해당함.

▶ 세 번째 질문(핵심 청렴 위협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전략적 목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가?)

-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청렴도 측정의 목표는 청렴도 측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패척결과 청렴도 제고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고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에 있음.

- 청렴도 측정은 직·간접적 부패 경험 및 인식 정도,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조직내의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인사 예산집행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 징계 수준의 엄정성, 부패 예방 노력도 등 수십가지의 평가항목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하므로 한국은 D모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네 번째 질문(학습과 신뢰성 증진에 대한 청렴 목표 측정을 위해서 지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 한국은 모든 부패위험분야에 대한 전략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수치화하여 결과를 평가함. 청렴도 평가는 매년 실시하므로 대상 기관의 청렴도 변화를 연도별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청렴도 측정의 결과가 국민에게 공표되므로 D모델에 해당함.

▶ 다섯 번째 질문(행동계획은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가?)

- 동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은 C모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반부패 이행을 위한 의무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지표와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음.

3. 전반적으로 예시가 많이 제시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을 담은 핸드북이라고 평가되나, 성숙도 모델의 질문이 좀 더 명확한 차이를 담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또한 기술적인 문제로서, 각 질문들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볼드체나 밑줄로 한눈에 들어오게 표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캐나다는 우리측의 발표에 대해 평가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 기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평가대상 기관들이 상호 평가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한바 우리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총괄하고 있다고 답변함.

▶ 핸드북에 대한 국가별 의견

- **(노르웨이)** 동 핸드북의 타겟이 누구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정책 입안자인지 인사 담당자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야 함. 현재 핸드북은 정책 입안자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사 담당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쉽고 간략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독일)** Integrity System이 무엇인지, 해당 용어에 대한 해석부터 어려움을 겪음. 독일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나뉘었음.
 - 또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며, 같은 내용을 두고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임.
- **(프랑스)** 청렴교육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교육은 국가별로 내용이 다양하며 그 폭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크다고 여겨지는바, 더욱 작은 단위로 나누어져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스위스)** 위험성 평가(Risk Management)에서 커버하는 영역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대하며, 각 단계별로 반복되는 질문이

많이 등장함. 따라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성숙도 모델을 두 개로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칠레)** 원칙 13(participation) 중 이해충돌 부분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국회의 참여는 미진하다고 언급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적인 답변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청렴 권고안 이행 심사

- OECD 사무국측은 페루와 아르헨티나가 각각 '17.2월과 '19.3월에 청렴성 심사(Integrity Review)를 통해 청렴권고안 상의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한바, 내년 4월 있을 공공행정위원회(PGC)에서 상기 2개국을 초청하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상정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동의를 표함.

□ 향후 청렴작업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

- OECD 사무국은 2020년에 향후 2년간(2021-2022) 청렴작업반에서 논의하게 될 주요 의제를 선정하여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논의 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주요 의제는 아래와 같음.
 - 청렴 권고안 이행을 위한 핸드북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관련 toolkit 개발
 - 공공청렴안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작업
 - 부패 방지를 위한 자료 활용

- 리더십과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
 - sub-national level(지방정부) 차원의 청렴정책, 시스템 적용을 위한 전략 개발
 - 정책개발 및 policy making의 청렴도와 투명성 제고
- OECD 사무국은 이 외에 추가적인 의제에 대하여 11.26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붙임 1 회의 일정	
11.4.(월)	
08:30~09:30	등록
09:30~09:45	1. 개회
09:45~13:00	2. 공공 청렴 권고안 시행을 위한 청렴 핸드북 논의 • 각 분야별로 13개국 발표(한국은 제3 권고안(전략 부문)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및 의견 개진)
13:00~14:30	점심 휴식
14:30~16:00	3. 공공청렴 지표 영향력 높이기 • 공공청렴지표 개발 OECD T/F team • Mr. Jesper Johnson, OECD 공공정책국 공공분야 청렴과 정책분석관
16:00~16:30	커피 브레이크
16:30~18:00	4. 공공정책 마련시 청렴도 높이기 : 2010 로비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도 원칙 권고안 업데이트 (그룹 토론)
11.5.(화)	
08:45~09:30	등록
09:30~13:00	5. 청렴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tools) : 인지도 및 역량 제고 (청렴권고안 8과 관련) (그룹 토론)
13:00~14:30	점심 휴식
14:00~16:00	6. 청렴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tools) : 청렴자문기구
16:00~16:30	커피 브레이크
16:30~18:00	9. 폐회식 및 향후 논의 방안 공유 • G20 인프라 개발분야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모음집 소개 • 뇌물작업반의 '2018 외국뇌물방지 시행 :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보고서 관련 발표 • 2020년 OECD 청렴주간(Integrity Week) 아젠다 관련 논의 등

붙임 2 회의 사진



붙임 3 공공청렴 권고문 주요 토픽

< 공공청렴 권고문 주요 토픽 >

[[책임에 대한 의지]

1. 공공 부문 내 최고 수준의 정치적 및 관리 책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여 공공 청렴성을 제고하고 부패 수준을 개선한다.
2. 공공 부문 전반에 제도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공 청렴 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전략]

3. 공공 청렴성 위험 요인 완화를 목표로 증거에 기반한 공공 부문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개발한다.

[준칙]

4. 높은 수준의 공직자 행위준칙을 설정한다.

[범사회적]

5.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및 개인과 협력하여 특히 다음을 통해 범사회적 공공 청렴 문화를 증진한다.

[리더십]

6. 청렴 리더십에 투자하여 특히 다음을 통해 청렴에 대한 공공 기관의 의지를 표명한다.

[성과기반]

7. 공공 서비스 가치와 굿 거버넌스를 전담하는 성과 기반의 전문적 공공 부문을 활성화한다.

[역량 강화]

8. 공직자가 직장에서 공공 청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교육, 지침 및 시의적절한 자문을 제공한다.

[열린]

9. 청렴 문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내에서 열린 조직문화를 지원한다.

[위험 관리]

10. 공공 기관 내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특히 다음을 통해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시행]

11. 시행 매커니즘이 공공 청렴 기준 위반에 관련한 공직자와 다른 사람들의 모든 위반 의심 사례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보장한다.

[감독]

12. 공공 청렴 시스템 내의 외부 감독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참여]

13. 정치 과정 및 정책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책임성과 공익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특히 다음을 통해 장려한다.

붙임 4

의제별 토론 그룹 배정표

Item 6. Innovative tools for integrity, Capacity building (interactive session)

Group 1	Group 2	Group 3 (ER)	Group 4	Group 5
1. Amitai Fisher (Israel) 2. Torge Dyrstad (Norway) 3. Vavara Kaskova (Russian Federation) 4. Temutokas de Oliveira Junior (Brazil)	1. Martina Koger (Slovenia) 2. Mårit Id Irene Krane (Norway) 3. Marie Lintzer (France) 4. Carolina Carls Ildo (Brazil) 5. Marianna Szabonek Gal (Hungary)	1. Anne Rivera (Switzerland) 2. Abdellatif Benmani (Morocco) 3. Azeddine Droui (Morocco) 4. Peier de Hoack (Belgium)	1. Kathleen Clarlin (Canada) 2. Francesco Clementucci (Italy) 3. Nina Thorsen Nottelmann (Norway) 4. Helene Garwisch (Switzerland)	1. Marcello Drago (Chile) 2. Maki Takahashi (Japan) 3. Katarzyna Dudzik (Poland) 4. Mahamet Fatih Yildirim (Turkey)
Group 6	Group 7	Group 8	Group 9	Group 10
1. Fernando Garcia Nardiaz (Chile) 2. Conceição Ventura (Portugal) 3. Suheyla Demirel (Turkey) 4. Mattie Kumar (Slovenia)	1. Marie Slavick (Czech Republic) 2. Sohee Moon (Korea) 3. Elife Telle Tava (Turkey) 4. Ana Maria Guimaraes (Brazil)	1. Anne Hjedis Karth (Denmark) 2. Andrei Kariyos (Latvia) 3. Pooja Tyankova (Bulgaria) 4. Maria Laura Escuder (Argentina)	1. Anna Gru (Finland) 2. Irca Nolle (Latvia) 3. Helmi Kihlova (Slovak Republic) 4. Tristar Pedetty (USA)	1. Isadora Zubek (France) 2. Guillermo Gutierrez (Mexico) 3. Javier Fernandez Gonzalez (Spain) 4. Egle vanauskaite (Lithuania) 5. Judita Bruchovska (Slovak Republic)